

무용의 실천 영역별 윤리적 과제와 무용 연구윤리 연구동향 분석[†]

홍애령* 한국교원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무용의 실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윤리적 과제와 무용학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윤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연예술의 한 분야로 무용은 공연, 교육, 연구의 3가지 실천 영역에서 수행되어오면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면한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무용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무용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장 중심의 무용이 고유의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타 분야와 대등한 입지를 갖춘 학문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용의 실천 영역별 윤리적 과제를 탐색적으로 제시하고, 무용 연구윤리를 다룬 선행연구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연' 영역에서는 저작권, 계약, 시와의 협업, '교육' 영역에서는 무용교육자, 지도자, 단장의 윤리의식 및 인성, '연구' 영역에서는 자료수집, 분석에서의 윤리적 관점, 연구윤리 교육의 부족 등이 윤리적 과제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 연구윤리 연구동향을 살펴본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저작권(47), 저작물(29), 안무(17), 전통무용(15), 인공지능(13) 순의 주요어가 나타났다. 연구를 바탕으로 무용의 실천 영역별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도의 정비, 무용학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와 무용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과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무용, 무용학, 공연, 교육, 연구, 윤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은 공연예술의 한 분야로 주로 무용수와 안무자의 예술적 행위를 드러내는 작품 혹은 공연으로 대표된다. 현장성이 두드러진 분야인 무용이 한국에서 학문으로서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대학(이화여자대학교)에 무용학과의 최초로 설립된 1963년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시점으로 추측한다(홍애령, 박재근, 2018). 일반적으로 어떠한 분야가 학문(a discipline)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고유의 지식체계(body of knowledge)와 지식의 구조 혹은 지식체계(knowledge system)가 필수적이다(강현석, 2009). 무용학 역시 무대 공연이라는 하나의 현장(field)에서 발생하는 현상(무용)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무용수, 안무가, 교육자, 행정가 등 전문가들에 의해 생성된 지식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그 기간이 타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이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무용학의 하위 학문 체계는 인접 학문인 체육학, 예술학에 영향을 받았고 시기마다 주목받는 논제 또한 인접 학문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모든 학문 분야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류체계에 제시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분류체계에 무용학은 존재하고 있으나 세부 분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용교육에 안무, 연출이 포함되는 등 항목별 위계가 실제 무용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렵다. 한편 202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 이 논문은 한국무용과학회 제49회 추계학술심포지엄의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교원대학교 제1대학 초등교육과 조교수, dphong@knu.ac.kr

(<https://www.kistep.re.kr>)는 국가과학기술의 기획·평가·관리의 기본체제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2018년 개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해 관련기관의 개정 수요 및 신기술 경향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분류체계 역시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정되었고 무용은 다른 예술, 체육과 함께 학문 분야로서의 세부 영역보다는 실천 영역과 학문 영역이 혼재되어 분류된다.

이처럼 무용학의 학술 체계가 정립되어 가는 과정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의 실천 영역에서는 학술 연구, 가치 판단이 필요한 갈등 상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중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그 분야의 사회적 문제가 미디어를 통해 부각된 이후이다(김항인, 2005). 대중매체를 통해 무용계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가 전해진 것은 2018년이다. 당시 방탄소년단(Bangtan Boys, BTS)의 삼고무 퍼포먼스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인 고 이때방 명인의 유족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춤의 저작권에 관한 큰 관심이 불거졌다. 유사한 사례로 2019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원)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2호 태평무, 제97호 살풀이춤 종목의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보유자 총 8명의 인정을 의결하였는데 이때 다수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해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하였다(김기중, 2019.11.1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지위는 향후 전승과 보존을 위한 교습과 공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사에서 태평무 보유자 1인에 대한 인정 예고 후에 일부의 반발로 그 결정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공연장 밖에서도 향유가 가능해진 무용 안무,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등장하였다.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무용 안무의 저작권, 작품에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권 등 예술가로서 작품 창작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도 무용 단체의 예술감독이나 무용지도자의 비위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뿐 그 이후의 지속적인 논의는 부족하였다. 다수의 분야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주제에 관해 예방과 대처, 후속 조치를 위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진다. 특히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를 법적으로 논해야 하거나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윤리적, 도덕적 이슈의 경우 학계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선례를 남기기 위해 애쓰게 된다. 무용계에서도 전통춤의 저작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등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무용의 실천 영역에 잠재되어 있는 윤리적 과제들은 여전히 지속성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무용학 분야에서 윤리적 과제를 다룬 논의가 부족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학문적, 실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용의 상업화, 산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의 훼손과 윤리적 딜레마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무용이 상업적 요구에 따라 변형되면서 본질적인 예술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최문정, 2024). 둘째, 전 생애주기 학습자를 위한 무용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기준이 없어 교육내용의 깊이와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윤리적 논의가 결여된 교육은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신상규, 2011; 홍애령, 2020). 셋째,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무용의 전 분야에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쟁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기술의 남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왜곡 등은 무용계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새로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다(박유나, 2024; 박진서, 조남규, 2023). 따라서 무용학 분야에서 윤리적 과제를 다루는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무용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무용이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예술(social arts)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무용학이 예술적, 미학적 의미를 넘어서 다른 분야 학문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동반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불가결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무용계 혹은 무용학 분야에서 무용수, 안무자, 교육자, 행정가들은 여전히 활발하고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문체계의 큰 범위 내에서 무용학이 체계를 갖추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용의 실천 영역별로 마땅히 지켜야 하고 지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기준이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의 한 분야로 성장한 무용이 무용학으로서의 정립을 위해 공연, 교육, 연구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무용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공연콘텐츠로서 무용에 대한 윤리적 인식은 다소 생겼지만, 교육과 연구 맥락에서의 윤리적 인식은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까지 진행된 무용의 실천 영역별 윤리적 과제를 조사하고 무용연구윤리 관련 연구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의 실천 영역별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무용학에서 윤리적 주제들은 어떠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를 위해 무용학 분야에서 수행된 윤리관련 선행연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보고서, 단행본, 해외자료가 모두 통합 검색되는 한국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를 주자료원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무용과 윤리, 저작권, 윤리교육, 인권, 표절 등의 관련 개념을 교차 검색하여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목록화하였다. 1차 자료 정리결과, 무용-윤리(6편), 무용-저작권(64편), 무용-윤리교육, 인권, 표절(14편)을 다룬 선행연구가 총 81편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학술논문이 같은 주제로 게재된 2편, 실제 연구내용이 윤리적 관점과 거리가 먼 2편을 제거하여 최종 74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발행 연도, 발행지(학위수여 대학), 주제어를 기준으로 재정리하였고 연구자가 제시한 주요어(키워드)를 포함하여 국문초록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주요어까지 논문 1편당 최대 6개의 주요어를 추출하여 순서대로 별도의 셀을 생성하였다.

RISS를 기준으로 무용학 분야에서 윤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수행된 최초의 연구는 1995년 김귀남의 「무용저작권에 관한 연구」(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물의 국문초록, 주요어, 연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2000년 조영주의 「무용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를 시점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무용학에서 윤리적 관점에 따라 수행된 연구는 타 연구 주제에 비해 매우 소수였다가 2014년, 2020년 무용 저작권 이슈가 두드러지면서 학술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주목받았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 조사도구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공연, 교육, 연구 영역별 윤리적 갈등 상황과 과제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6.0과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UCINET은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정량적인 수치로 분석

할 수 있는 도구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 다양한 네트워크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이택균, 2020). 연결 중심성은 핵심 노드(node)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며, 근접 중심성은 핵심 노드가 다른 노드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두 노드 간의 경로에서 해당 노드가 얼마나 자주 포함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중심성 지수는 정제된 키워드, 즉 특정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빈번하고 긴밀하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정량적 지수로 보여주며 이를 토대로 그동안 활발하게 연구된 주제와 그렇지 못한 주제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내용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과 RISS에서 PDF를 다운로드 받아 Excel로 주요어를 코딩한 후, UCINET 6.0과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의 중심성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무용학에서의 윤리적 주제를 다룬 주요어들이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연구되었는지 관계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무용의 실천 영역별 윤리적 과제

1) 공연예술로서의 무용: 무용 공연

한국에서 무용 공연은 주로 실기 장르를 중심으로 한 3분법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한국무용 전통, 창작, 클래식 발레, 창작 발레, 현대무용 등의 부문으로 구분되어 ‘콩쿠르’라 불리는 무용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용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공연, 대회, 축제를 운영하는 (사)대한무용협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용콩쿠르나 서울무용제, 전국무용제 등의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단법인 기관과 협회, 지부, 지회 등이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다. 국공립 무용 단체와 민간 단체, 최근에는 ‘독립무용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무용수, 안무가들도 존재한다.

결국 극장 형태의 무대 혹은 그 밖의 공간을 무대라고 칭하며 그것을 배경으로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활동이 무용이라는 공연예술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활동이다. 몸과 아름다운 움직임이라는 핵심을 제외하고 무용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용수 개인의 연습과 노력, 예술적 기교를 닦기 위한 그 밖의 수양이 강조되고 그것이 개인화되었다가 강습, 전수, 안무 지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문제는 전통적이거나 최근의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품 하나에만 관여되는 사람(인적 자원)과 동기나 영감을 부여하는 재료(음원, 영상, 안무)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무용 전공자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무용 공연이라는 맥락을 짧게 소개했다면, 이러한 공연예술로서 무용이라는 특정 분야를 규정하는 ‘공연’이라는 활동에서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갈등 혹은 논쟁이 있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대표적으로는 안무의 ‘저작권’이다. 특히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전통춤의 경우 이수자와 전수자, 그 춤을 추는 사람 간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춤을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 무용인 발레나 현대무용의 경우 특정 안무가의 안무, 순서, 기법이나 무대 디자인을 그대로 공연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한국 전통춤의 경우 과거 인간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컸던 만

컴 본래 이수자의 안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무용을 통한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2018년 12월 뮌헨뮤직어워드에서 BTS의 멤버가 삼고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우봉 이매방 선생의 유가족과 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겪었다. 국가무형문화재 2개 종목(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의 예능 보유자인 이매방 명인의 유작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는 유가족에 의해 사후 저작권이 등록되었고 당시 '우봉', '이매방', '우봉 이매방'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신청이 되어 비대위가 구성되기도 하였다(최보영, 2018.12.29.).

이를 계기로 무용 공연에서 사용되는 춤, 안무, 음원에 대한 저작권 범위와 논의를 크게 불이 지퍼졌다. 이에 대한 안무가 고유의 움직임이나 특정한 동작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범위, 최근에는 댄스 필름, 영상, CF 등 무용 실연을 넘어서 기록물이 되어 하나의 콘텐츠를 구성할 때 저작권에 대한 법적 다툼도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AI 안무 프로그램에 유명 안무가의 무용 양식을 기계 학습을 하게 시킨 결과 탄생한 안무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2) 교육의 목적과 내용으로서의 무용: 무용 교육

우리나라의 무용 교육은 학교무용, 생활무용(사회무용), 전문무용의 3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학교무용은 공교육 제도권 내에서 실시되는 교육으로 무용은 초중등학교의 체육 교과 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955년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 교육과정에서 발표되었을 당시, 체육 교과 내에서 무용은 별도의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표현(활동)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대단원으로 대체되어 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현대 표현과 같은 중단원과 신체활동 예시로서 다양한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둘째, 생활무용(사회무용)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별, 연령, 취향이 다양한 다수의 학습자가 지역사회나 전문기관을 통해 무용을 배우는 영역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무용학원, 문화센터, 최근에는 예술 강사들이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방문하여 교육하는 형태로 아동·청소년시설, 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에서도 무용을 체험하고 배우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전문무용은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무용학과, 직업무용수들로 구성된 무용 단체 등에서 무용을 실연, 공연하는 영역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전문무용은 서울에서 창단된 무용단, 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용단이 설립되었고 이후 직업무용수들이 활동하는 국공립, 민간무용단이 설립되었다. 전문무용의 교육은 주로 대학교의 무용학과에서 담당하며 전문무용수의 발굴과 양성을 통하여 무용의 독립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대학무용교육의 형태가 콘서바토리(conservatory)와 흡사해지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다(김수인, 2016). 1963년 우리나라에 무용학과가 처음으로 개설된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많은 지역의 대학에 무용학과가 개설되며 무용 분야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 초반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2005년 청주의 서원대학교를 기점으로 11개의 대학에서 무용과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기에 이르렀다(조진희, 2023).

교육 영역에서는 무용지도자의 윤리의식(이해리, 2020), 무용단장의 인성 등이 윤리적 관점에서 꾸준히 조망되고 있으며 무용교육자의 전문성과 자질로서 연구되었다(홍애령, 2012). 무용교육자의 윤리와 도덕성은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수업 환경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용교육자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학습자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은 학습자의 인격 형성과 예술적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무용수업에서 지도자의 도덕성은 특히 중요하다. 무용지도

자의 도덕적 결핍은 학습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권위적인 지도 방식이나 성희롱, 학습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해리, 박성주, 2023). 이러한 사례는 학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용교육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무용교육자의 윤리와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윤리 교육과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도덕적 행동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롤모델로 작용하며, 무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또한, 무용교육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고유의 지식체계, 학문으로서의 무용: 무용 연구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류체계에서 무용학이 존재하였으나 그 분류 내용을 살펴보면 무용 교육에 안무, 연출이 포함되는 등 실제 무용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구분으로 제안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표준분류 해설서(2024)에 따르면 무용(dance)은 대분류 예술체육학에 포함되어 있고 ‘사유과 감정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예술로 춤에 대한 철학, 역사, 교육, 과학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무용을 중분류로 하여 <표 1>과 같이 무용철학, 무용미학, 무용사, 무용비평, 무용인류학, 무용보, 움직임분석, 무용교육, 무용치료, 무용심리학, 무용사회학, 무용기능학, 안무, 기타무용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타 학문 분야에서 학문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다르고 무용비평의 경우 예술비평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어 있기도 하다.

표 1. 한국연구재단 학술표준분류에서 무용학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G000000 예술체육학	G110000 무용	G110100 무용철학	G110800 무용교육
		G110200 무용미학	G110900 무용치료
		G110300 무용사	G111000 무용심리학
		G110400 무용비평	G111100 무용사회학
		G110500 무용인류학	G111200 무용기능학
		G110600 무용보	G111300 안무
		G110700 움직임분석	G119900 기타무용

무용학을 분류하는 또 다른 체계로, 202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https://www.kistep.re.kr>)는 국가과학기술의 기획·평가·관리의 기본체제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2018년 개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해 관련기관의 개정수요 및 신기술 경향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대분류 22개, 중분류 277개, 세부 영역 2,799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무용은 ‘HH. 문화예술체육학’ 내에 음악학, 미술, 디자인, 의상, 사진, 미용, 연극, 영화, 체육 다음으로 10번째 중분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뒤이어 콘텐츠, 게임, 문화유산, 기타 문화예술체육학이 있다. 세부 영역은 <표 2>와 같이 무용이론/비평, 무용철학/미학/무용사, 무용보/움직임 분석, 무용심리학(무용치료 포함), 무용사회학/인류학, 무용교육(안무/연출 포함),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유사하다고 판단한 세부 영역을 함께 묶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묶여져 있는 영역의 성격이 명칭상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연구 내용이나 주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이다.

개정 전 체계(2018-2022)				개정 체계(2023년 이후)					
	연구분야	대분류		소분류	연구분야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학기술	자연	4	47	339	자연	4	47	2,799	
	생명	3	49	448	생명	3	47		
	인공물	9	112	858	인공물	9	109		
인문사회과학	인간	5	61	546	인문사회학	3	60		
	사회	9	88	634					
	인간과학과 기술	3	14	73					
인간 과학과 기술	3	14	73	인간 과학과 기술	3	14			
합계	연구분야 6개	33	371	2,898	연구분야 5개	22	277		2,799

그림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분류체계 변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2023)

표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서 무용학의 분류

분야	대분류	중분류	세부 영역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학	HH. 문화예술체육학	HH10 무용
			HH1001. 무용이론/비평 HH1002. 무용철학/미학/무용사 HH1003. 무용보/움직임 분석 HH1004. 무용심리학(무용치료 포함) HH1005. 무용사회학/인류학 HH1006. 무용교육(안무/연출 포함) HH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용

선행연구의 내용분석 결과, 무용 분야 연구윤리를 다룬 연구는 1편 존재하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연구내용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앞선 무용학의 학문분류체계 정립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용학 연구자는 대부분 석사, 박사과정을 통해 입문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구윤리에 관한 인식이 조금씩 부각되던 10여년전부터 무용연구에서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윤리 부정행위는 무용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문적 신뢰성을 손상시킨다는 우려는 낳았다(최해리, 2014). 그럼에도 학위논문이나 학술연구에서 연구윤리 교육 이수 등을 필수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용학 분야에서 여전히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도, 인식이 낮고 연구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무용 연구윤리 연구동향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국내 무용학 연구에서 윤리와 관련된 주제들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문초록, 주요어,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관련 연구물의 발간 시기인 200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연구자료들을 수집하고 연도별, 출처별 자료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주요어별 중심성 지수를 산출하여 상위개념을 도출하였다.

표 3. 무용 연구윤리 연구물의 발행 연도

발행 연도	박사	석사	학술지	연도	합계
2000	0	1	0		1
2003	0	1	0		1
2005	0	1	0		1
2006	0	1	1		2
2008	0	1	1		2
2009	0	0	2		2
2011	0	0	2		2
2012	0	0	1		1
2014	1	0	10		11
2015	1	1	3		5
2016	0	1	3		4
2017	0	1	3		4
2018	0	0	3		3
2019	0	0	6		6
2020	3	1	7		11
2021	0	0	2		2
2022	0	1	4		5
2023	0	1	4		5
2024	0	1	8		9
총합계	5	12	6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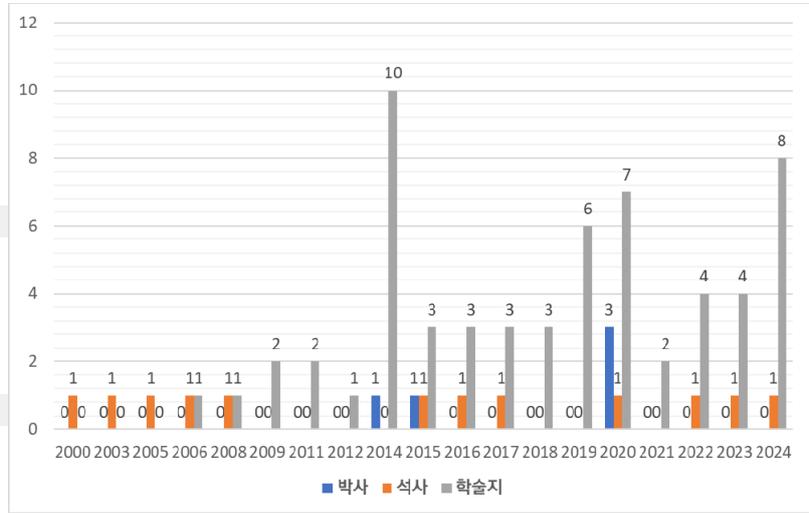


그림 2. 무용 연구윤리 연구물의 연도별 출처

첫째, 무용 연구윤리 연구물의 발행 연도별 추이는 <표 3>과 같이 나타났고 2014년과 2020년 연도별 합계 총 11편의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그림 2>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14년에는 학술지에서 10편의 연구가 윤리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여 이 시기 전통춤과 안무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심성 지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무용학 연구에서 다루어진 윤리적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핵심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무용학 연구에서 윤리적 주제의 주요어 및 중심성 지수는 연결 중심성 지수가 2이상을 대상으로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도 연결중심성 지수가 높은 주요어들이 확인되고 있었다.

표 4. 주요어 및 중심성 지수

주요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조화 중심성	고유 벡터 중심성
저작권	47*	9430.332*	34428*	99.183*	0.517
저작물	29	2623.285	2136	78.85	0.368
안무	17	1604.488	2098	76.617	0.289
전통무용	15	1024.333	2155	71.1	0.257
인공지능	13	3918.455	2086	74.433	0.109
무용콘텐츠	11	1344	2178	65.933	0.083
윤리	11	6139.221	2148	67.667	0.03
무용수	9	2887.809	2103	70.267	0.119
창작성	8	232.758	2157	68.433	0.211
무용지도자	7	1011	2307	51.2	0.004
연극	7	415.542	2167	66.433	0.165
자본주의정신	7	926.5	2307	51.2	0.004
등록	6	330.905	2117	69.783	0.185
한국무용	6	342.5	2192	61.933	0.117
무용교육	5	1005	2297	51.233	0.004
무용단	5	678	2311	49.867	0.004

주요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조화 중심성	고유 벡터 중심성
문묘석전	5	678	2348	47.379	0.007
미디어	5	510	2185	62.767	0.071
전통문화	5	220.262	2186	62.6	0.12
댄스IP	4	381.429	2192	61.183	0.066
무용교육자	4	505.333	2292	51.2	0.005
보호	4	19.95	2172	64.6	0.147
블록체인	4	341	2195	60.767	0.082
생물학	4	510	2313	49.2	0.004
안무가	4	240.447	2171	64.05	0.11
윤리교육	4	510	2462	40.648	0
윤리의식	4	943.19	2248	52.417	0.009
작품	4	919.524	2173	62.55	0.073
저작권법	4	0	2168	65.267	0.163
저작권산업	4	6	32218	4	0
전통창작무용	4	393.35	2194	60.933	0.065
침해	4	0	2168	65.267	0.163
커뮤니티댄스	4	510	2413	41.783	0.001
포스트휴먼	4	422.5	2313	49.2	0.004
행복	4	510	2313	49.2	0.004
활성화	4	195.064	2132	66.617	0.127
권리	3	133.464	2135	65.783	0.114
디지털	3	171	2189	61.433	0.069
무용학	3	177	2333	47.795	0.013
케이팝	3	341	2196	60.267	0.06
표절	3	90.833	2291	53.629	0.051
공연	2	171	2198	59.6	0.06
실질적유사성	2	7.9	2303	52.012	0.055
연출가	2	0	2183	62.1	0.101
영상	2	37.95	2241	52.75	0.032
예술	2	9	2472	39.548	0.001
이매방	2	10	2320	49.545	0.037
인정	2	0	2260	53.067	0.062



그림 3. 워드 클라우드

첫째,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저작권(47), 저작물(29), 안무(17), 전통무용(15), 인공지능(13)순으로 5위권을 형성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이 47로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으며, 그 뒤를 저작물(29), 안무(17), 전통무용, 인공지능(13)이 따르고 있다. 이는 무용 공연 영역에서의 저작권 이슈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공연되는 저작물로서 작품, 안무, 그중에서도 전통무용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무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매개 중심성은 저작권(9430.3), 윤리(6139.2), 인공지능(3918.5)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경로를 얼마나 자주 매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네트워크에서의 중개 역할을 반영한다. 저작권이 9430.3의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였고 윤리(6139.2), 인공지능(3918.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저작권과 인공지능이 무용학 윤리적 주제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근접 중심성 역시 저작권(34428)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주요어들이 2100대의 지수를 보인 가운데, 저작권산업이 32218로 높게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과 얼마나 짧은 거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효율성 및 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저작권은 34428로 가장 높은 근접 중심성을 보였고, 그 뒤를 저작권산업(32218), 예술(2472)이 따른다. 이는 저작권이 무용학 연구에서 윤리적 주제의 중심에 위치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용학 연구에서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고 연구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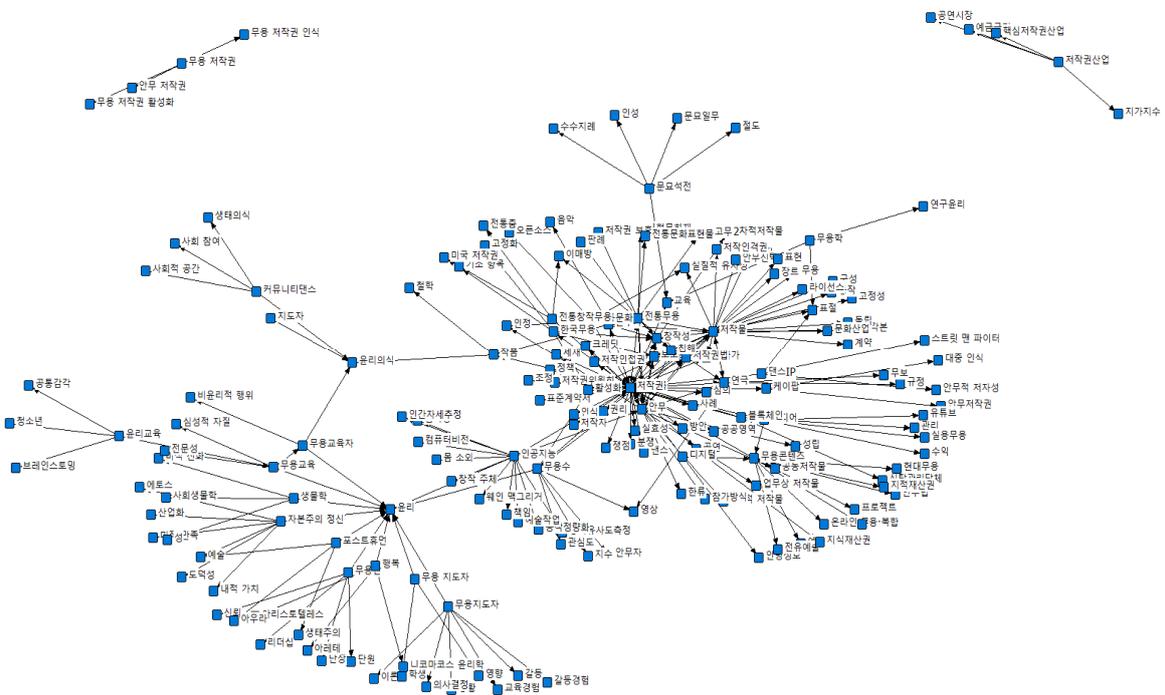


그림 4. 무용학 연구에서 윤리적 주제의 키워드 네트워크

2) 한국 연구윤리 체계와 무용 연구윤리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에 따라 최근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대학 및 학술단체가 주도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이슈를 발굴하고, 교육방안 마련을 통해 건전한 학술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각 학문 분야를 관장하는 학술단체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이슈 도출 및 대응을 통한 자정적 연구윤리 문화 확립이 필요하고 특히 분야별 학술단체 스스로가 연구윤리 지도, 관리, 교육의 역량을 배양하고 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용학 분야는 <그림 5>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심화과정에서 인문사회(10개), 이공(8개), 예체능(3개) 분야 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문별 특화된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예체능계는 미술, 음악, 체육만 제시되어 있고 학문분류체계에 무용학이 존재함에도 연구윤리교육은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교육체계 심화과정 구분(한국연구재단, 2025)

이 때문에 무용학 연구자들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과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분야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고민되고 실제로 무용과 적당한 사례보다는 일반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사실상 공연의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대학 무용학 관련 전공의 석사, 박사과정생만이 연구에 관심을 둔다고 가정하였을 때, 무용연구자들이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용학 분야에서 학술연구를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났다는 점에서 착안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무용 분야에서는 인문·사회학과 교육학 등과 함께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춘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연구라기보다 무용 그 자체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무용 분야가 실기 전공에 따라 공연예술로서의 활동에 치중해왔기에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이 타 분야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고, 오래된 난제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변화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무용학은 학술연구의 주제, 대상과 참여자, 방법론이 매우 다양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과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무용학 분야 학술단체 차원에서 연구윤리 교육이나 전문가 양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한국무용과학회가 연구윤리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윤리 교육과 사례 발굴 연구를 실시하고 소수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물이 발표되고 있으나 무용학 분

야에서 현재까지 연구윤리를 다룬 연구는 1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홍애령, 2024). 임명주(2014)는 무용학에서 연구윤리의 쟁점으로 국문학 분야와 유사한 생존 인물 연구에서의 중립성, 글쓰기와 연구윤리에 소홀한 무용학 연구자의 학자로서의 인식, 표절, 올바른 저자 표기 등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무용학 신진연구자들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면서 글쓰기와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무용학 본연의 내용학 연구에 치중하면서 연구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충분한 대학원 수업 개설, 교과목 시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는 자체적으로 연구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학하기도 벅찬 상황이기에 올바른 인용 표기, 저자표시, 말 바꾸어 쓰기 등 실제로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범할 수 있는 표절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무용학 연구자의 경력주기에 따라 신진연구자(석사, 박사과정생), 중견연구자(박사급 연구원, 교수)로 구분하여 기본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윤리 교육과 무용학 글쓰기에서의 표절 방지 방법을 학습하고 심화 과정에서 자료수집이나 분석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 저자표시, 중복게재, 부실의심학술지 인식 등의 교육을 시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무용의 실천 영역에서 논의되어온 윤리적 과제와 그동안 무용학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윤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연예술의 한 분야로 무용은 공연, 교육, 연구의 3가지 실천 영역에서 수행되어오면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면한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무용학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무용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천 영역에서 실천을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무용학의 입지 확보를 위해 각 영역별 윤리적 과제를 탐색적으로 제시하고 무용 연구윤리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연 영역에서는 저작권, 계약, AI와의 협업, 교육 영역에서는 무용교육자, 지도자, 단장의 윤리의식, 인성, 연구 영역에서는 자료수집, 분석에서의 윤리적 관점, 연구윤리 교육의 부족 등이 윤리적 과제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 연구윤리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저작권(47), 저작물(29), 안무(17), 전통무용(15), 인공지능(13)이 5순위내에 포함되었다. 매개 중심성은 저작권(9430.3), 윤리(6139.2), 인공지능(3918.5) 순으로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 역시 저작권(34428)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주요어들이 2100대의 지수를 보인 가운데, 저작권산업이 32218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용의 실천 영역별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도의 정비, 무용학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와 무용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과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무용 분야가 주력하고 있는 공연 영역 외에 교육 및 연구 영역에서도 윤리적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과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용학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과 단계별 연구윤리 교육의 이수와 실제 연구 수행시 연구자의 윤리 준수 노력과 실천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무용학의 학문적 입지와 타 학문과의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연구를 지원, 평가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조차 무용학이 고유의 분류체계로 구분되지 않고 모든 학문이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교육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센터를 주축으로 연구윤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있으며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한국연구재단, 2023b). 이 법에서는 연구 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대한 정의와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 부정행위 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고시 2018-67호)은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신고 및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교육부, 2023). 이 지침에 따라 각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자체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연구자는 최대 10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특히 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논문 작성 전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교육부, 2023).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최근 강화된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관련 법률과 연구윤리지침을 타 학문 연구자들은 발빠르게 접하고 이에 준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무용학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나 무용 연구윤리에 적합한 교재, 교육자료 또한 부족하다. 연구윤리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의 질적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과 실천이 개인 무용학 연구자의 노력에만 책임을 둘 것이 아니라 무용학계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용학계의 학회, 연구소 등 학술단체가 무용학 분야에서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방안과 연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등 대학, 대학원의 연계 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하다. 202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활동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무용과학회는 무용 분야 연구윤리 사례 발굴 연구를 통해 학술적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연구윤리 교육 내용과 무용 분야에 특화된 표절, 자료수집의 적정성 등 연구윤리의 이슈를 사례별로 수집하여 교육자료를 제공할 바 있다. 이러한 시도가 한 학회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인력풀이 좁은 무용학계의 특성상 하나의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무용계 전반의 실천 영역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고 학계 구성원의 각성과 연구윤리 준수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석(2009). Bruner의 교육과정 이론에서 지식의 재해석: 지식의 구조와 내러티브의 관계. *교육철학*, 38, 1-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https://www.law.go.kr>
- 교육부(2022). *체육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고시 2018-67호). <https://www.moe.go.kr>
- 김기중(2019.11.28.). 승무-태평무-살풀이춤 8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서울신문*.
- 김수인(2016). 학문분과로서 무용의 다면성에 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60(3), 17-36.
- 김향인(2005). 연구자의 연구 윤리 정립 방안. *윤리연구*, 1(59), 145-168.
- 박유나(2024).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함께하는 무용 예술작업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상황에 관한 탐구: 무용가의 몸 소외 현상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74, 3-26.
- 박진서, 조남규(2023). 미메시스(Mimesis)로 본 딥페이크 기술의 무용예술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40(2), 61-75.
- 신상규(2011). 청소년 윤리교육을 위한 무용교육 활용방안-브레인스토밍 무용 자습 설계. *모드니예술*, 4, 199-210.
- 이택균(2020). 키워드 빈도와 중심성 분석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국내 연구 동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23-35.
- 이해리(2020). *무용교육자의 윤리의식 탐색*.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해리, 박성주(2023). 무용지도자의 윤리적 갈등경험 탐색. *한국스포츠인류학회 학술지*, 18(1), 249-276.
- 조영주(2000). *무용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희(2023). 대학 무용학과 특성화 사례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2(2), 37-57.
- 최문정(2024). 자본주의 무용과 예술의 윤리적 딜레마.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32(2), 113-129.
- 최보영(2018.12.29.). **방탄소년단도 춘 '삼고무'가 대체 뭐길래? 저작권 둘러싼 과열 양상**. CHNB.
- 최해리(2014). **무용연구에서의 표절 문제**. 무용역사기록학회 제102차 월례특강 자료집.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고시 개정**. 음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연구재단(2023a). **국가 연구윤리 정보센터(NRERC) 운영 현황**. <https://www.nrer.or.kr>
- 한국연구재단(2023b). **연구윤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nrf.re.kr>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2024). **학술표준분류 해설서**. 세종, 대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cms/page/main?menu_no=464
- 홍애령(2012).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핵심 차원으로서 심성적 자질의 재조명과 함양 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1), 23-42.
- 홍애령(2020). 한국 무용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영역의 재검토: 교육무용 지향에서 큰 무용교육 지향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4), 121-139.
- 홍애령(2024). **무용학의 실천과 연구를 위한 윤리적 과제**. 한국무용과학회 제49회 추계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홍애령, 박재근(2018). 대학 무용학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인정 전공교과의 체계적 학습모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5(2), 51-65.

ABSTRACT

Analysis of Ethical Issues in Dance Practice and Trends in Dance Research Ethics

Aeryung H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th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practice of dance in the context of its academic research. Specifically, it seeks to understand the ethical principles that govern dance scholarship and the impact of dance on ethical considerations in academic research. The study focuses on three key areas: performance, education, and research, which collectively represent the diverse ethical challenges encountered in dance scholarship. However, the ethical dilemmas encountered in the field have not been thoroughly examined in the context of military ethics research.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paucity of research on military ethics. The present study is characterized by its focus on the field of usability, which is underpinned by a comprehensive knowledge system. It aims to establish a superior academic standing by addressing ethical issues in the context of usability, and it has provid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se issu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ly, in the "Performance" domain, the focus was on copyrights, contracts, and collaboration with AI; in the "Education" domain, the emphasis was on the ethical awareness of instructional designers, leaders, and instructors; and in the "Research" domain, the focus was on data collection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data analysis. The research identified a lack of ethical training in research ethics. Secondly,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dance ethics revealed that the most prevalent scholarly works were those focusing on copyrights (47), publications (29), choreography (17), traditional dance (15), and artificial intelligence (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eth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dance education, with a focus on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for dance research, and the enhancement of research ethics in dance. The study will also examin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ethics in dance education and the challenges faced in implementing research ethics in dance.

Key words : dance, performance, education, research, ethics

논문투고일: 2025.02.21

논문심사일: 2025.03.26

심사완료일: 2025.04.14

* Assistant Professor, 1st College,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